

기준을 세우는 일

강정아 (인턴기자)

얼마 전 방학을 맞이하여 서울에 와서 오랜만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을 때였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같은 칸에 타고 있는 의문의 사람에게서 다음과 같이 적힌 사진 파일을 전송 받았다.

“여러분 여기 집중해주세요. 이 열차에는 임신한 남자가 타고 있습니다. 임신부석을 보세요.”

아마도 어떤 남성분이 지하철에 있는 임신부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분이 이런 사진을 보낸 모양이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서 사진파일을 전송 받아 놀라기도 했지만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찝찝하기도 했다.

임산부석에 임신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 자리를 비워두어서 임산부들이 눈치보지 않고 필요할 때 앉게 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일반 사람들은 다른 자리에 앉아야 한다. 실제로 퇴근길 복잡한 지하철에

서도 임산부석만은 텅그러니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되고, 임산부가 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굳이 비효율적으로 그 자리만을 비워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배려하여 일부러 앉지 않는 자리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은 것을 잘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힘든 사람이 잠시 그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단체적으로 눈총을 줄 필요가 있는 일인지 며칠 동안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 한편, 어떻게 보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피해를 입어 온 사람들이 이렇게나마 서로 배려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으로 정해진 영역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처음 깨달은 것은 그동안 기준이 모호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법을 여기면서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기준에 대해 고민이 부족했었다. 물론 법으로 규정한 것들과 혹은 교회나 가정에서 교육 받은 도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상황에 부딪힐 때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에

는 늘 내 감정이나 입장이 먼저 고려되는 함정에 빠지기도 했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볼 때는 화가 나고, 또는 내 기준대로 살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해결해 줄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법이 아닌 영역에서도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에게 이야기 했더니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책에 **“선(善)을 트렌드로 만들라”**는 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었다. 그동안의 고민에 하나의 해결책이 되어주는 말이 있었다. 어떤 방법이 될지는 아직 더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개인의 양심을 회복하고,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아니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선’, 그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찾아가 보고 싶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에 따라 질서 있는 삶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